

<글로벌이슈브리프>는 주요 이슈에 대한 해외 싱크탱크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.
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해외문화홍보원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글로벌 이슈 브리프

NO. 14

GLOBAL ISSUE
BRIEF 2022

탄소중립

THINK TANK VIEW

국제전략연구소 |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21. 11.

Why Won't Major Coal-Dependent Countries Sign on to a Coal Phaseout Deal?
석탄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석탄 감축 노력에 주저하는 이유

맥킨지앤드컴퍼니 | Mckinsey & Company 2022. 1.

Managing the Net-zero Transition: Actions for Stakeholders
넷 제로 경제 전환: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조언

애틀랜틱 카운슬 | Atlantic Council 2021. 4.

Increasing ESG Practices Can Help Asia Reach Goals of Carbon Neutrality
ESG 확대를 아시아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어



1. 국제전략연구소 |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

석탄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석탄 발전 감축 노력에 주저하는 이유

Sandeep Pai, Jane Nakano

2021. 11.

 Why Won't Major Coal-Dependent Countries Sign on to a Coal Phaseout Deal?

| 석탄 발전 감축의 필요성 |

- 석탄 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
- 선진국들이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줄여나가지 않으면 1.5도 증가를 막을 수 없음

| 석탄 발전 감축 노력 현황과 한계 |

- COP26에서 선진국뿐 아니라 베트남 등 개도국도 석탄 연료 감축 합의
-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미국, EU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석탄 사용을 줄여나가고 있음
- 미국 및 유럽국가들은 2022년까지 석탄 연료 인프라에 대한 자금 지원을 끝내기로 합의
- 그런데도 전 세계 석탄의 2/3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중국, 인도, 호주 등이 석탄 사용 감축 약속에 주저

| 중국, 인도, 호주의 상황 |

① 중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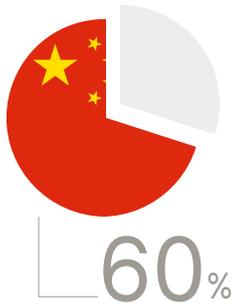
- 중국은 세계에서 석탄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국가로 전력 공급의 60% 이상 차지
- 석탄 광산과 발전은 국영 기업들에 의해 운영되고 지역 정치에서 막대한 영향력 발휘
- 중국 정부는 대규모의 정전 사태로 어쩔 수 없이 석탄 생산과 석탄 발전소를 늘리고 있음
- 석탄의 사용 증가가 일시적인 장기적인 흐름인지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사안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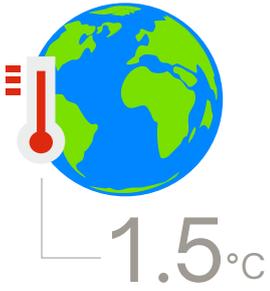
② 인도

- 석탄은 인도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적인 요소로 전력 생산의 70% 차지
-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석탄 수입국인 인도는 풍부한 국내 매장량을 활용해 인도 국민과 산업계에 안정적인 전력을 제공하려고 노력 중
- 이런 상황에서 석탄 감축에 참여하게 되면 인도 국내 정치에 악영향을 미치고 현 정부는 이에 대처할 준비 미비
- 석탄은 일자리와 세수 측면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석탄 사용을 줄이는 것이 더욱 어려움

③ 호주

- 호주는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으로 글로벌 석탄 거래의 약 1/3 수준 차지
- 정부가 2050년까지 넷제로에 도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, 호주의 에너지와 경제의 상황을 고려하면 달성이 불투명해 보임
- 친환경 전력 생산의 가파른 증가에도 석탄은 여전히 호주 전체 전력 공급의 54%를 차지하여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
- 정치, 경제, 에너지 당위성을 고려하면 호주는 석탄 감축 협약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





| 결론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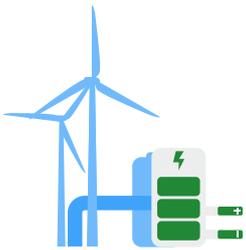
- 중국, 인도, 호주는 경제와 정치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모두 석탄 연료의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다는 공통점이 있음
- 석탄이 높은 정치적, 경제적 위상을 차지하는 이들 국가가 변화를 피할 가능성은 극히 낮음
- 파리 기후협약은 국내 정치가 국제 기후변화 의제보다 우선한다는 것과 석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줌
- 시장 경제, 투자자의 신뢰, 기술적인 대안 등을 적절히 활용해 석탄 감축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



2. 맥킨지앤드컴퍼니 | Mckinsey & Company

넷 제로 경제 전환: 이해 관계자들을 위한 조언
2022. 1.

 [Managing the net-zero transition: Actions for stakeholders](#)



66

넷 제로 경제를 위해서 국가와 사회의 커다란 변화 필요
정부, 기업, 개인의 단합된 행동뿐 아니라 각각의 역할도 중요

99

| 넷 제로를 통합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이유 |

- 모든 국가는 세계적인 생산과 소비 시스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미침
-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넷 제로 경제 전환의 부담은 이해관계자마다 다름
- 넷 제로 전환을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제 역할을 해야 함

| 집중해야 할 3가지 사항 |

1. • 효율적인 자본 배분과 새로운 자금 조달 구조 촉진(기후변화 자금 확충 등)
• 새로운 시장 마련(자발적 탄소 시장 등)
•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력 제고
• 가치를 잃은 자산의 위험 관리 제고
2. • 기후 변화의 위험과 기회에 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투명성 제고를 통해 섹터별로 수요 변화와 단가 증대 관리
• R&D 비용을 낮추고 산업 생태계를 육성해 가치 사슬에 걸친 협력을 통해 넷 제로 전환으로 발생하는 비용 증가 억제 노력
• 넷 제로 전환을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 마련
3. • 보상 메커니즘을 마련해 사회·경제적 영향 줄이기(피해 본 근로자를 위한 교육과 재취업 기회 및 사회 지원 프로그램 등)





|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|

기업을 위한 조언

- 1
 - 넷 제로 경제로의 전환과 근로자 재교육을 위한 논리를 설득시키고 소통
 - 광범위한 경제적·사회적 변화 지원
 - 항상 소통하며 지속가능 의제를 달성하기 위해 리더십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함
- 2
 - 넷 제로 전환 관련 위험과 기회를 전체적이고 역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역량 개발
 - 기업의 운영과 공급망에서 배출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도구 적극 사용
- 3
 - 규제, 금융 환경의 변화에 맞춰 탄소 저감 및 상쇄 계획을 분명히 정의하고 지속해서 업데이트
- 4
 - 탄소 저감 계획에 필요한 민첩한 기업 전략 포트폴리오 구성
 - 넷 제로 전환으로 발생하는 위험과 기회를 파악해 기회가 있으면 행동에 착수
 - 자본 재분배 정책을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탄소 배출이 적은 사업 우선 추진

정부를 위한 조언

- 1
 - 넷 제로 경제 전환의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탄소 저감 계획 마련
 - 도시 계획, 인프라 개발, 세수와 지원금 제도 등의 의사 결정에 기후변화 고려사항 반영
 - 새로운 배출량 저감 산업 조성
- 2
 - 여러 분야에 걸쳐 탄소 저감에 대한 투자를 장려를 위해 정책과 규제 활용(지원금, 보조금, 탄소세 등)
 - 기술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R&D를 촉진하는 역할 수행
 - 인력의 재교육 및 재배치 방안과 사회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저소득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최소화 노력
- 3
 -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단체 행동 촉진

개인을 위한 조언

- 개인도 소비자이자 시민으로서 넷 제로 전환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함
- 소비자와 근로자로서 겪을 수 있는 기후변화와 넷 제로 전환의 영향에 대해 학습하는 작은 일부터 시작
- 넷 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새로운 행동 양식과 소비 방식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(전기차 구매,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주택 개선 등)

| 결론 |

- 넷 제로 경제 달성을 위한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규모와 복잡성에서 도전이 될 것
-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으로 변화된 글로벌 경제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음
-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담함과 의지 필요



3. 애틀랜틱 카운슬 | Atlantic Council

ESG 확대로 아시아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어
Songye Jung
2021. 4.

 [Increasing ESG Practices Can Help Asia Reach Goals of Carbon Neutrality](#)



| 기업의 탄소 중립 현황 |

- 기업 운영에 ESG 적용 압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
-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은 탄소 중립 경영 비중 확대
- 동아시아 기업들은 환경적, 사회적 지속가능한 투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
- 중국의 CSI 3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은 ESG 경영 순위에서 최하위 기록

| ESG 투자를 정책 도구로 탄소 중립 경제 달성 노력 |

- 중국,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 ESG 투자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
- ESG를 선제적으로 채택해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선택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
- EU는 금융 시장의 참여 주체들이 ESG 고려사항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
- 아시아 국가들도 EU의 사례처럼 ESG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


|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ESG 경영 주도 |

- 최근 테슬라와 애플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자사의 제조 공급망에서 엄격한 ESG를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동아시아 기업들도 ESG 도입을 늘리고 있음
-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인 중국은 2050년까지 전체 자동차 판매의 20%를 친환경 차량으로 만드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움

| 동아시아 각국의 ESG 상황 |

- 한국은 정부, 은행, 기업 등이 46억 달러에 달하는 ESG 채권을 발행 중임
- 한국은 2020년에 중국을 넘어 동아시아 최대 ESG 채권 발행국이 되었음
- 일본은 2020년에 총 지속가능 투자금 운용자산이 3조 달러를 넘어 연간 45% 상승
- 중국의 ESG 관련 펀드 총 운용자산은 적은 수준이지만 2019~2020년 사이 50% 증가해 일본을 넘어섬

| 결론 |

-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투자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, 아직 초기 단계임
- 한국과 중국은 각각 2025, 2021년부터 상장 기업의 ESG 공개 의무화를 발표하는 등 ESG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임
- 아시아의 기업들은 사업 운영 방향을 재설정하고 최고 경영자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함
- 지속가능 개발에 사업 전략, 의사 결정, 조달, 공급망, 소비자 참여 등을 보장해야 함
-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구와는 다른 아시아 고유의 기업 문화와 우선순위에 맞는 ESG 체계를 마련해야 함
-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 기준 채택을 가속해야 함
- 정부는 금융 시장을 개혁하고 명확한 환경적, 사회적 기준을 마련해야 함